

海技高等教育機關 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 한국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

金星國 * . 辛瀚源 **

A Study on the Shipboard Collegian's View of Value and Variation in Higher Maritime Educational Institution : The Case of Kores Maritime University

Seong-Kook Kim *, Han-Won Shin **

〈 目 次 〉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및 제한점

1. 연구방법
2. 연구의 제한점

IV. 가치관의 분석결과

1. 경제에 대한 가치관 분석결과
2. 교육에 대한 가치관 분석결과
3. 사회에 대한 가치관 분석결과
4. 직업에 대한 가치관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It is through utmost importance that establishing view of value on the part of Collegian's in Higher Maritim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it is also deemed to lay foundation enhancing educational efficiency that surveying tendency of view of value.

Under the above premise, this research support to investigate tendency of the view and contribute to betterment of Higher Maritime Educational Institution.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운경영학과 박사과정

** 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상학부 교수

We have implemented the questionnaire survey to study the Shipboard Collegian's Sense of Value and the change of its worth on totally 900 collegians who studied the Maritime College of the Korea Maritime University.

And the result was calculat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 among each collegian group(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was analyzed by χ^2 inspection.

Further more, we compared collegian of the Maritime College of the Korea Maritime University with those of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The result was as followings;

- a) the way of selfish, egoistic thought and male supremacy are still remains
- b) the idea of mammonism is still deep-rooted in all parts of sense
- c) the consciousness of self-growth and self-perfection toward seamanship is weak
- d) intimacy between professors and collegians is low and weak

We suggest that continued higher maritime education process could give satisfaction to collegian of higher maritime institution.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과 相異한 문화권의 相接相應으로 인하여 비약적으로 發展變化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發展變化는 인간이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하는가 하면, 어느 경우는 인간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變化發展도 한다.

인간이 바라는 바람직한 발전이란 발전의 요소인 物質文明이나, 精神文明의 조화에서 오는 인간의 풍요로운 삶의 가치, 즉 바람직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풍요로운 삶일 것이다.

가치관이란 한 인간에게는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주고 그 행동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서나, 집단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만약 개인이나 집단이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개인으로서는 그가 가진 動機와 포부, 지각하고 해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자체의 방향감마저도 동요한다.

가치관의 방향감은 개인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과 인간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게 될 때, 구성원들 간에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획일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한 사회가 건전하게 변화하기 위하여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가

치관이 사회발전과 더불어 조화롭게 발전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관이 행동의 動因으로써 다양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여야 하는 청년기에 있어서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은 더욱 중요하다.

國家社會의 발전이 모든 분야의 종합적인 발전개념으로 파악되어 질 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해양진출의 분야는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끊임없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海運産業을 근대화할 수 있는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海技士로서의 품성을 길러야 할 海技高等教育機關¹⁾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가치관 정립은 기본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2. 연구의 목적

海技高等教育機關에 있어서 海技士의 전전한 가치관 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한 대학생의 가치관 傾向性을 알아보는 것은 교육의 實效性을 擧揚하는데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가치관의 이론적 탐색을 도모하고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대학생들의 가치관의 경향을 조사하며, 또한 변화해가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자료를 통하여 고찰하여보고 아울러 이를 통한 海技高等教育機關의 교육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하고 있는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대학생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느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고찰함으로써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海技高等教育機關의 하나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가치관을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가치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는 목포해양대학교 학생의 가치관과 비교분석하였는데, 선행연구를 토대로 1970년대,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가치관의 변화경향도 연구하였다.

1) 본 연구에서 海技高等教育機關이라 함은 海技教育 즉, 海技士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한다. 1996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海技高等教育機關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경상대학교 수산대학, 여수수산대학교, 군산수산전문대학 등등이 있으나, 연구의 목적에 맞는 海技高等教育機關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로 한정하였고, 특히 목포해양대학교는 선행연구에서 전문학교, 전문대학, 단과대학 등의 다양한 學制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海運系 大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 과정에 있어서 가치관의 개념에 대하여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의 가치관 분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될 가치관의 영역을 정립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가치체계에 의하면 많은 영향을 받지만, 인간의 의식은 복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가치관에 대한 관점은 연구자의 전공에 따라 혹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정의되었다. 즉, 哲學者는 주로 가치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心理學者는 개인의 가치측정에 중점을 두며, 사회학자는 가치와 사회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가치관에 관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은 문화사회적 所産이나 개인의 학습을 통해서 내면화되어 動機로서 작용하고 있어 인간행동의 방향에 示唆的 影響을 준다. (崔正燕²⁾, T. M. Newcomb³⁾)

둘째, 가치관은 是非, 惡意, 正否, 適否의 판단방향을 갖는 屬性을 지니고 있다. (鄭範謨⁴⁾, 黃禎奎⁵⁾)

셋째, 가치관은 개인의 심리적 체계에 內面化되어 동기로서 작용하는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인간이 행동을 이룩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극히 필요하다. (金泰吉⁶⁾, C. Kluckhohn⁷⁾)

또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접근으로는 다음과 같다. 즉, 클러크혼(F. R. Kluckhohn)은 “가치관은 부단히 계속되는 인간행동의 흐름에 대하여 질서의 방향을 주며, 공통적인 인간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결부시킬때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평가과정의 세가지 요소 즉,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방향적 요소가 완전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유형을 가진 원칙이다”라고 하였고,⁸⁾ 鄭範謨는 “가치관에 대한 사고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발전이라는 선상에서만 아니라 그 선은 미래로까지 연장하여서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였다.⁹⁾

따라서 가치관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조화롭게 발전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건

2) 崔正燕, 知覺心理學, 서울: 乙酉文化史, 1972, p.53.

3) 金仁子·黃應淵, 韓國大學生의 價値觀에 關한 研究, 西江大學校 社會問題研究所, 1974, p.8.에서 재인용.

4) 鄭範謨, 價値觀과 教育, 서울: 培英社, 1979, p.17.

5) 黃禎奎, 教育評價, 서울: 教育出版社, 1968, p.164.

6) 金泰吉, 새로운 價値觀의 同志, 서울: 民衆書館, 1972, p14.

7) Clyde Kluckhohn and other, "Values and Val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alcot Parson, Edward A Shilsetal,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p.395.

8) Clyde Kluckhohn and other, *op.cit.*, 1951, pp.395-396.

9) 鄭範謨, 前揭書, p.80.

전하게 변화하기 위하여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행동의 動因으로써 다양화되어 있는 사회에 있어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여야 하는 青年期에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은 더욱 중요하다.

2. 선행연구

가치관에 관한 연구의 동향은 의식구조나 가치관의 문제가 관념적, 철학적인 논의의 대상에서 경험적,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바뀐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다. 근래에 와서는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가치관을 연구한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전공학과와 가치와의 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피드먼(K. A. Feidman)과 뉴콤(T. M. Newcomb)의 연구가 있다.¹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에 관해서는 金泰吉의 연구¹¹⁾, 金仁子·黃應淵의 연구¹²⁾ 및 張彦孝·安昌一·李光鎬의 연구¹³⁾ 등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한 연구는 姜熙昶의 연구,¹⁴⁾ 辛瀚源의 7인의 연구,¹⁵⁾ 申蘭植의 연구,¹⁶⁾ 朴貴南의 연구¹⁷⁾ 및 이길래의 3인의 연구¹⁸⁾ 등이 있다.

특히, 申蘭植의 연구는 朴貴南의 연구 및 본 연구가 장기적으로 해기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의 가치관 수준 및 변화를 살펴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선행연구의 결과로 삼았다. 또한 朴貴南의 연구는 목포해양대학교의 학생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관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대상의 자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제2차 선행연구 및 제3차 선행연구의 결과로 사용하였다.

10)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理論的 價値는 自然科學 分野에서 支配的이고 人文·社會科學 分野에서는 劣勢하다. 둘째, 經濟的 價値는 人文·社會科學 分野 특히 商經系에서 支配的이고 人文·社會科學 分野에서는 劣勢하다. 셋째, 審美的 價値는 人文·社會科學 分野에서 支配的이고 自然科學 分野에서는 劣勢하다. 넷째, 社會的 價値는 社會科學 分野에서 支配的이고 自然科學 分野에서는 劣勢하다. 다섯째, 政治的 價値는 社會科學 특히 政治學이나 經濟學系에서 支配的이다. 여섯째, 宗教的 價値는 人文科學 分野에서 支配的이고 社會科學 分野에서는 劣勢하다. K. A. Feidman and T. M. Newcomb, "The Impact of College on Students", San Francisco : Tossey-Bass Inc., Pub., 1970, pp.154-158.

11) 金泰吉,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 일조각, 1967.

12) 金仁子·黃應淵, 前揭書, 1974.

13) 張彦孝·安昌一·李光鎬, 社會發展을 위한 大學生의 價値觀 및 意識構造 變化에 관한 研究, 文教部, 1982.

14) 姜熙昶, 工業高等學校 學生들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3.

15) 신한원·문경만·김윤식·이영호·채양범·박호철·설동일·국승기, 해사대학생들의 효율적인 승선생활훈련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학회지 제15권 4호, 한국항해학회, 1991.

16) 申蘭植, 海洋系 大學生들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목포해양전문학교 논문집 제11집, 목포해양전문학교, 1978.

17) 朴貴南, 海洋系 大學生의 價値觀에 變化에 對한 考察-社會的, 職業的 價値觀 變化를 中心으로-, 목포해양전문대학 논문집 제17집, 목포해양전문대학, 1983, 海洋系 大學生의 價値觀에 變化에 對한 考察-經濟的, 教育的 價値觀 變化를 中心으로-, 목포해양전문대학 논문집 제19집, 목포해양전문대학, 1985, 海洋系 大學生의 社會觀과 職業觀의 變異考-木浦海洋大學生을 中心으로-, 목포해양전문대학 논문집 제26-1집, 목포해양전문대학, 1992 및 海洋系 大學生의 經濟觀과 教育觀의 變異考-木浦海洋大學生을 中心으로-, 목포해양전문대학 논문집 제2집, 목포해양대학, 1994.

18) 이길래·배석제·정흥기·홍성근, 수·해운계 승선계열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및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한국항해학회지 제20권 2호, 한국항해학회, 1996.

본 연구에서 제1차 선행연구는 申蘭植의 연구(海洋系 大學生들의 價値觀에 關한 研究, 1978), 제2차 선행연구는 朴貴南의 연구(海洋系 大學生의 價値觀의 變化에 對한 考察, 1983 및 1985), 제3차 선행연구는 朴貴南의 연구(海洋系 大學生의 社會觀과 職業觀의 變異考, 1992 및 海洋系 大學生의 經濟觀과 教育觀의 變異考, 1994)를 말하고 각 연구에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제한점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 연구¹⁹⁾와 관련한 문헌을 통하여 가치와 가치관의 개념을 정립하고 범주와 지향성에 따른 가치관 분류경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1996학년도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년별 가치관을 조사하고 선행연구의 결과를 二次資料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1996년 9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海技高等教育機關중에서 한국해양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1996년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설문지를 1학년 300매, 2학년 300매, 3학년 160매, 4학년 300매 등 총 1,060매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불량한 반응을 제외하고 총 900매를 자료처리하였다.

또한 항목별 가치관의 측정방법으로는 SPSS for WINDOWS, Ver. 6.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학년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χ^2 검증에서 사용된 자유도(df)는 모두 9이며,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p=0.05$ 수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대상과 설문지 배포후 채택된 결과는 다음 [표 1]로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각 학년별로 배포한 내용 및 채택된 설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였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의 대상은 해사대학 학생(항해, 기관계열)이며, 목포해양대학교의 대상은 선행연구에서 언급이 없었다.

19) 본 연구에서 제1차 선행연구는 申蘭植의 연구(申蘭植, 海洋系 大學生들의 價値觀에 關한 研究, 목포해양전문학교 논문집 제11집, 목포해양전문학교, 1978), 제2차 선행연구는 朴貴南의 연구(朴貴南, 海洋系 大學生의 價値觀에 變化에 對한 考察-社會的, 職業的 價値觀 變化를 中心으로-, 목포해양전문대학 논문집 제17집, 목포해양전문대학, 1983 및 海洋系 大學生의 價値觀에 變化에 對한 考察-經濟的, 教育的 價値觀 變化를 中心으로-, 목포해양전문대학 논문집 제19집, 목포해양전문대학, 1985), 제3차 선행연구는 朴貴南의 연구(朴貴南, 海洋系 大學生의 社會觀과 職業觀의 變異考-木浦海洋大學生을 中心으로-, 목포해양전문대학 논문집 제26-1집, 목포해양전문대학, 1992 및 海洋系 大學生의 經濟觀과 教育觀의 變異考-木浦海洋大學生을 中心으로-, 목포해양대학 논문집 제2집, 목포해양대학, 1994)를 말하며, 여기에서 사용한 자료를 海技高等教育機關의 시대별 가치관 자료로 사용한다.

[표 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설문대상 비교

(○ : 실시, × : 미실시 ? : 미확인)

구분	대상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비고
		배포	채택	배포	채택	
제1차 선행연구	1학년	○	?	○	240(추정)	海技高等教育機關 의 비교
	2학년	○	?	○	240(추정)	
	3학년	×	×	×	×	
	4학년	○	?	×	×	
	소계	462	450	511	480	
제2차 선행연구	1학년	×	×	250	240(추정)	목포해양전문대학교 학생의 시대별 비교
	2학년	×	×	250	240(추정)	
	3학년	×	×	×	×	
	4학년	×	×	×	×	
	소계	×	×	500	480	
제3차 선행연구	1학년	×	×	250	240(추정)	목포해양대학 학생의 시대별 비교
	2학년	×	×	250	240(추정)	
	3학년	×	×	×	×	
	4학년	×	×	×	×	
	소계	×	×	500	480	
본 연구	1학년	300	280	×	×	海技高等教育機關의 학년별, 시대별 비교
	2학년	300	280	×	×	
	3학년	160	140	×	×	
	4학년	300	200	×	×	
	소계	1060	900	×	×	

측정도구로 사용한 설문지의 작성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비교대상으로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세대간의 변화(선행연구와 시간차이는 20년의 기간임)를 조사할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 교육, 사회, 직업에 대한 4개 영역의 가치관에 대하여 4-5개의 항목으로 다시 세분하고, 설문항목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설문에서 사용된 가치관의 측정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에 대한 가치관

- ① 자주관
- ② 재화획득관
- ③ 절약관
- ④ 근로관
- ⑤ 해운발전관

2) 교육에 대한 가치관

- ① 입학동기관

- ② 학습목적관
 - ③ 전문교과에 대한 흥미도
 - ④ 바람직한 교수상관
 - ⑤ 교수-학생 관계관
- 3) 사회에 대한 가치관
- ① 공공질서관
 - ② 男尊女卑관
 - ③ 부모에 대한 태도관
 - ④ 배우자 선택관
 - ⑤ 행복관
- 4) 직업에 대한 가치관
- ① 직업평가관
 - ② 직업성장관
 - ③ 해기사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자기반응
 - ④ 해기사 직업에 대한 평가관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海技高等教育機關 재학생들의 학년간 가치관 차이와 海技高等教育機關間的 가치관 차이 그리고 시대별 가치관의 변화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의 비교대상 海技高等教育機關인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는 學制間의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대표적 海技高等教育機關인 한국해양대학교는 4년제 대학이었지만 목포해양대학교는 선행연구인 제1차 조사대상기간(1975년), 제2차 조사대상기간(1984년), 제3차 조사대상기간(1992년)에는 각각 學制가 다른 학생이었기 때문에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동일한 상황의 대학생을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추정하기가 곤란하다.²⁰⁾ 아울러 선행연구에서는 海技高等教育機關間的 가치관 비교(제1차 선행연구: 한국해양대학 1, 2, 4학년생과 목포해양전문대학교 1, 2학년생 조사)와 목포해양대학교 학생의 세대간 차이(제2차 및 제3차 선행연구: 목포해양전문대학 1, 2학년생만 조사)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선택이 각기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海技高等教育機關의 하나인 한국해양대학교 재학생들의 가치관의 학년간 차이를 우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국해양대학교에만 실시하였고, 목포해

20) 한국해양대학교는 1945년 11월 5일 개교부터 4년제 교육기관으로 시작하였으나, 목포해양대학교는 1985년 2월 29일까지 수업년간 2년 6월의 목포해양전문학교 및 목포해양전문대학 시대를 거쳐, 1993년 2월 29일 까지 수업년간 3년으로 확대하고, 1993년 3월 1일에야 비로소 목포해양대학교로 승격되어 비로소 수업년간이 4년이 되었다. 한국해양대학교, 1996-1997 한국해양대학교 요람, 1996, p.15. 및 목포해양대학교, '95 대학생활안내, 1995, p.14.

양대학교의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의 자료를 引用하였다.

IV. 가치관의 분석결과

1. 경제에 대한 가치관 분석결과

1) 자주관의 분석결과

자주관이라 함은 재산증식에 관한 의식적 태도의 일면을 뜻한다.²¹⁾ 사람이 잘 사는 이유에 관한 설문인 自主觀에 있어서는 재학생의 학년에 따른 재산증식에 관한 의식은 [표 2-1]과 같이 학년간의 차이는 $p > 0.05$ 로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각학년 모두 자신의 노력에 따라 잘 살게 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자기가 타고난 운명의 순서였으며, 70년대와 마찬가지로 90년대에서도 국가의 시책에 따른다는 것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표 2-2]와 같이 海技高等教育機關의 차이에 있어서는 목포해양대학교는 자기가 태어난 운명보다는 국가의 시책에 따른다고 응답하여 학교간의 차이는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우리 사상속에 古來로부터 전해온 運命論,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몫은 타고난다는 관념이 현실성이 없는 말이 되었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한다는 의식이 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포해양대학교의 자주관인 90년대의 의식은 80년대 대학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살고 못사는 결과에 대하여 자신의 노력여하보다는 국가의 시책여하라고 하는 변화의 결과는 사회의 역기능적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²²⁾

[표 2-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自主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자신의 노력	221(78.9%)	218(77.9%)	121(86.4%)	160(80.0%)	720(80.0%)
국가의 시책	6(2.1%)	9(3.2%)	1(0.7%)	5(2.5%)	21(2.3%)
자기가 타고난 운명	27(9.6%)	27(9.6%)	6(4.3%)	19(9.5%)	79(8.8%)
기 타	26(9.3%)	26(9.3%)	12(8.6%)	16(8.0%)	80(8.9%)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7.60304$

df=9

p=0.57459

21) 朴貴南, 前掲書, 1985, p.7.

22) 朴貴南, 前掲書, 1994, p.7.

[표 2-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自主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자신의 노력	368(81.78%)	720(80.0%)	347(72.29%)	428(89.23%)	312(65.0%)
국가의 시책	10(2.22%)	21(2.3%)	34(7.08%)	5(1.02%)	96(20.0%)
자기가 타고난 운명	48(10.67%)	79(8.8%)	81(16.88%)	15(3.07%)	48(10.0%)
기 타	24(5.33%)	80(8.9%)	18(3.75%)	15(3.07%)	26(5.42%)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2) 財貨獲得觀의 분석결과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서 대학생들의 재화획득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재산획득방법에 관한 財貨獲得觀을 분석한 결과는 [표 3-1]과 같이 유의도가 $p>0.05$ 의 수준으로 학년간에는 가치관의 차이는 없었다. 즉, 전체적으로 재화획득은 가능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얻겠다는 반응이 높았다. 그러나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려는 반응은 낮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拜金主義가 깊게 침투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표 3-2]와 같이 70년대와 비교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획득하겠다는 비율이 48.44%에서 19.1%로 크게 감소하였고 반대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획득하겠다는 반응이 6.67%에서 27.1%로 4배 이상 증가하여 가치관의 변화가 뚜렷하였다. 이것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서도 목포해양대학교의 경우에도 가치관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반응이 70년대에는 한국해양대학교보다 크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및 90년대에는 가능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획득을 하겠다는 반응이 증가하고 크게 감소하였다.

경제관에 있어서 재화획득관은 반드시 정당한 방법에 의하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선호하는 경향은 대학인의 가치관이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표 3-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財貨獲得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60(21.4%)	46(16.4%)	28(20.0%)	38(19.0%)	172(19.1%)
가능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155(55.4%)	137(48.9%)	73(52.1%)	99(49.5%)	464(51.6%)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60(21.4%)	88(31.4%)	38(27.1%)	58(29.0%)	244(27.1%)
기 타	5(1.8%)	9(3.2%)	1(0.7%)	5(2.5%)	20(2.2%)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11.73887$

df=9

p=0.22843

23) 朴貴南, 前掲書, 1994, p.7.

[표 3-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財貨獲得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218(48.44%)	172(19.1%)	190(39.58%)	233(48.44%)	77(16.1%)
가능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188(41.78%)	464(51.6%)	227(47.29%)	200(41.78%)	365(76.1%)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30(6.67%)	244(27.1%)	56(11.67%)	15(3.11%)	10(2.1%)
기 타	14(3.11%)	20(2.2%)	7(1.46%)	15(3.11%)	28(5.8%)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3) 節約觀의 분석결과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내면화 되어 있다시피한 虛禮虛飾인 冠婚喪祭의 체면치레가 가정의 레준칙이 발표된지 오랜 오늘날의 학생들의 의식경향은 학년별로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인의 결혼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節約觀에 관련한 결혼관의 가치관에는 각학년간의 유의도는 $p>0.05$ 로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응답의 9.2%가 기타의 경우로 반응하게 되어 [표 4-2]의 70년대 가치관 4.44%에 비하여 2배 이상 반응하였는데 목포해양대학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節約的 측면인 간소하게 결혼식을 하려는 반응이 70년대와 비교하여 2배 가량 감소하였고 節約的 측면이 아닌 호화롭게 하려는 반응과 가정형편에 맞추어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결국 이 반응에서는 각 학교 학생들의 결혼식에 관련한 반응은 가정 형편에 맞추어 하려는 경향으로 반응하였다.

절약관의 변화경향은 가정형편에 맞추어 하되 간소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의식으로서, 결과는 오늘의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²⁴⁾

[표 4-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節約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간소하게 한다	49(17.5%)	55(19.6%)	24(17.1%)	36(18.0%)	164(18.2%)
가정 형편에 맞춘다	189(67.5%)	178(63.6%)	92(65.7%)	124(62.0%)	583(64.8%)
호화롭게 한다	13(4.6%)	25(8.9%)	12(8.6%)	20(10.0%)	70(7.8%)
기 타	29(10.4%)	22(7.9%)	12(8.6%)	20(10.0%)	83(9.2%)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 = 7.67588$

df=9

p=0.56711

24) 朴貴南, 前掲書, 1994, p.8.

[표 4-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節約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간소하게 한다	181(40.22%)	164(18.2%)	170(35.42%)	175(36.41%)	70(14.6%)
가정 형편에 맞춘다	242(53.78%)	583(64.8%)	269(56.04%)	254(52.84%)	365(76.1%)
호화롭게 한다	7(1.56%)	70(7.8%)	23(4.79%)	39(8.20%)	10(2.1%)
기 타	20(4.44%)	83(9.2%)	18(3.75%)	12(2.56%)	28(5.8%)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4) 勤勞觀의 분석결과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적으로 정년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정년 퇴직자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점에서 海技高等教育機關의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가를 알아 보고자 勤勞觀에 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응답의 결과는 [표 5-1]과 같이 유의도가 $p>0.05$ 로 반응하여 각 학년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전체학년에서 전반적으로 전보다 적게 일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었고 또한 전과 다름없이 일한다는 반응과 일을 얹고 편히 지낸다는 반응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학년의 경우 계속 전과 같이 일을 하겠다는 반응이 21.3%로 전체 평균의 26.6%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고, 다른 학년의 경우 전보다 적게 일하겠다는 반응 다음으로 많은 반응을 보였지만 2학년 학생의 경우 세 번째의 반응에 해당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표 5-2]와 같이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과의 비교에서는 계속전과 같이 일을 하겠다는 반응이 급격하게 줄어 들었고, 그대신 전보다 일을 적게하거나 편히 지낸다는 가치관이 높게 신장하였다. 이는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대상인 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모두 70년대 보다 90년대의 반응이 점차 일을 적게하는 가치로 옮겨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을 얹고 편히 지내겠다는 경향이 70년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또한 海技高等教育機關의 전체적으로도 증가하고, 계속전과 다름없이 일하겠다는 비중이 줄어들어 변화는 사회적 경향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단, 80년대는 일을 계속할수 있다면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는 의식이 확립되어 가다가 90년대에는 사회적 맥락과 같이 변하고 있다.

[표 5-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勤勞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계속 전과 다름없이 일한다	82(29.3%)	60(21.4%)	41(29.3%)	56(28.0%)	239(26.6%)
전보다 적게 일한다	104(37.1%)	105(37.5%)	52(37.1%)	78(39.0%)	339(37.7%)
일을 얹고 편히 지낸다	47(16.8%)	78(27.9%)	25(17.9%)	43(21.5%)	193(21.4%)
기 타	47(16.8%)	37(13.2%)	22(15.7%)	23(11.5%)	129(14.3%)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16.00423$

df=9

p=0.06679

[표 5-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勤勞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전과 다름없이 일한다	236(52.44%)	239(26.6%)	159(33.12%)	182(37.9%)	100(20.1%)
전보다 적게 일한다	85(18.89%)	339(37.7%)	129(26.88%)	131(27.2%)	139(28.9%)
일을 얹고 편히 지낸다	71(15.78%)	193(21.4%)	134(27.92%)	129(26.8%)	193(40.2%)
기타	58(12.89%)	129(14.3%)	58(12.06%)	38(7.9%)	48(10.0%)
합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5) 海運發展觀의 분석결과

미래의 海技士로서 海運産業이 어느정도 발전하리라고 보는 가에 대한 기대수준인 海運發展觀이라고 명명한 해운계의 전망에 관한 응답으로는 [표 6-1]과 같이 유의도 $p < 0.05$ 로 학년간에 차이가 있었다.

각 학년은 전체적으로 해운계의 발전을 77.6%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2학년의 경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22.5%나 달했고 또한 전망이 어둡다는 비관론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30.4%에 달한다. [표 6-2]의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와 비교할 경우에는 전망이 어둡다는 비관론보다 낙관론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서는 목포해양대학교의 경우 70년대와 90년대를 비교할 경우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특이할 만한 사항인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의식이 海運産業을 3D 업종으로 직업군으로 분류한 것 같다²⁵⁾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의 학생이 낙관적인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해양대학교가 해기고등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개혁한 내용 즉, 발전적인 교과과정의 개편 및 학과의 다양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²⁶⁾

[표 6-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海運發展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아주 발전한다	130(46.4%)	103(36.8%)	59(42.1%)	82(41.0%)	374(41.6%)
조금 발전한다	103(36.8%)	92(32.9%)	54(38.6%)	75(37.5%)	324(36.0%)
차이가 없다	34(12.1%)	63(22.5%)	20(14.3%)	32(16.0%)	149(16.6%)
전망이 어둡다	13(4.6%)	22(7.9%)	7(5.0%)	11(5.5%)	53(5.9%)
합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 = 16.91986$

df=9

p=0.04999

25) 朴貴南, 前掲書, 1994, p.8.

26) 海技高等教育機關의 교육개혁을 연구한 李相鑣는 “오늘날 해기직의 고임금에 대한 매력력이 줄어들고 승진 기회 현상이 만연되자 해기인력의 가치마저 부정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해기인력은 해운산업 뿐만 아니라 해양산업과 해양환경에 분야에 있어서 불가피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선진 해기고등교육기관은 자율적인 교육 개혁으로 성공하고 있으며, 학생도 긍정적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대학교는 1992년부터 기존 학과내에 세부전공을 도입하고, 운항시스템공학부의 신설, 첨단 실습선 투입, 해양경찰학과 설치 등등 주도적으로 해기전문교육을 개혁하고 있다. 李相鑣, 21世紀를 向한 海技高等教育, 한국항해학회지 제17권 1호, 한국항해학회, 1993, pp.33-35.

[표 6-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海運發展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주 발전한다	170(37.78%)	374(41.6%)	208(43.33%)	217(45.12%)	62(12.9%)
조금 발전한다	170(37.78%)	324(36.0%)	181(37.71%)	162(33.84%)	125(26.1%)
차이가 없다	82(12.88%)	149(16.6%)	72(15.00%)	91(18.97%)	183(38.1%)
전망이 어둡다	28(6.22%)	53(5.9%)	19(3.96%)	10(2.05%)	110(22.9%)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2. 교육에 대한 가치관 분석결과

1) 入學動機觀의 분석결과

특수목적인 海技士 양성 및 해운전문인력을 양성하는 海技高等教育機關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직업선택요소와 관련시켜 보고, 대학 생활에 있어서 보람있는 학창생활을 영위하는 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또 학년간에는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入學動機觀의 조사하였다. [표 7-1]과 같이 각 학년의 유의도는 $p < 0.05$ 로써 학년별 입학동기가 차이가 있었다.

즉, 1학년의 경우 주위의 권유로 인한 입학이 가장 높았고, 입학동기간의 변화의 정도는 사회의 풍요로움으로 경제적 요인은 가장 낮았다. 그러나 2학년의 경우 성적에 의한 입학 등의 기타경우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주위의 권유로 인한 입학이 가장 낮았다. 3학년의 경우 적성과 소질에 맞추어서 입학하였다는 대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위의 권유로 입학한 경우가 높았다. 4학년의 경우 1학년과 비슷한 가치관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표 7-2]의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과 비교하면 경제적 사정으로 입학한 경우가 31.6%로 가장 높았으나 현재는 가장 낮은 반응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주위의 권유로 인한 입학이 2.5배 증가하는 등 입학한 동기가 증가하였고 또한 적성과 소질에 맞추어서 입학한 것으로 과거보다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적성이나 소질에 맞추어서 입학하는 추세는 바람직한 경향이 며, 주위의 권유를 받아 성적에 맞는 서류적 경향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²⁷⁾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 있어서도 목포해양대학교 역시 70년대에 비하여 적성과 소질에 맞추어서 입학하거나 주위의 권유로 입학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으로 입학하는 경우는 한국해양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직업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것이라고 볼 때,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대학생활에서의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교육적 고려가 요망된다.²⁸⁾

27) 朴貴南, 前掲書, 1994, pp.8-9.

28) 朴貴南, 前掲書, 1985, pp.11-12.

[표 7-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入學動機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적성과 소질에 맞추어서	65(23.2%)	70(25.0%)	46(32.9%)	53(26.5%)	234(26.0%)
경제적 사정으로	54(19.3%)	70(25.0%)	22(15.7%)	34(17.0%)	180(20.0%)
주의의 권유로	100(35.7%)	67(23.9%)	45(32.1%)	66(33.0%)	278(30.9%)
기 타	61(21.8%)	73(26.1%)	27(19.3%)	47(23.5%)	208(23.1%)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18.28778$ $df=9$ $p=0.03198$

[표 7-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入學動機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90년대	7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적성과 소질에 맞추어서	234(26.0%)	116(25.78%)	104(21.67%)	98(38.97%)	129(26.9%)
경제적 사정으로	180(20.0%)	142(31.55%)	236(49.17%)	30(6.15%)	145(30.2%)
주의의 권유로	278(30.9%)	116(25.78%)	93(19.37%)	234(48.71%)	120(25.0%)
기 타	208(23.1%)	76(16.89%)	47(9.79%)	29(6.15%)	86(17.9%)
합 계	900(100%)	450(100%)	480(100%)	480(100%)	480(100%)

2) 學習目的觀의 분석결과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을 연구하는 목적관이 학년간에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學習目的觀에 대한 반응은 [표 8-1]과 같이 유의도 $p>0.05$ 로서 각 학년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차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음으로 인격도야의 장으로 가치를 두고 있으며, 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

[표 8-2]의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와 비교하면 인격도야의 장으로서의 대학교육의 비중이 2배 가량 줄어들었고, 오히려 장차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2배 정도 반응하여 70년대의 가치관과는 많이 달라졌다.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서는 90년대에는 같은 형태로 반응하였고, 70년대와 비교해서도 한국해양대학교와 같은 반응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결국 海技高等教育機關의 학생은 선진국의 형태인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하여”는 현대산업의 형태로 의식이 형성되고 있어, 과거와 비교하여 기술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海運發展觀과 관련하여 해운산업의 낙관적인 발전관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기전문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8-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學習目的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장차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147(52.5%)	129(46.1%)	72(51.4%)	95(47.5%)	443(49.2%)
기술을 배우기 위해	38(13.6%)	36(12.9%)	17(12.1%)	24(12.0%)	115(12.8%)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53(18.9%)	74(26.4%)	30(21.4%)	51(25.5%)	208(23.1%)
기 타	42(15.0%)	41(14.6%)	21(15.0%)	30(15.0%)	134(14.9%)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5.84778$ $df=9$ $p=0.75505$

[표 8-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學習目的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장차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118(26.22%)	443(49.2%)	182(37.92%)	187(38.97%)	240(50.0%)
기술을 배우기 위해	24(5.33%)	115(12.8%)	58(12.08%)	30(6.15%)	72(15.0%)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251(55.78%)	208(23.1%)	210(43.75%)	234(48.71%)	125(26.1%)
기타	57(12.67%)	134(14.9%)	30(6.25%)	29(6.15%)	43(8.9%)
합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3) 專門敎科에 대한 興味度의 분석결과

해운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수목적의 대학으로서 전문교과에 대한 흥미의 정도를 학년간에 비교한 결과는 [표 9-1]과 같고 유의도 수준은 $p>0.05$ 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흥미가 있거나 보통 정도의 흥미도가 전체의 81.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인 전문교과에 대한 반응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4학년의 경우 흥미도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문교과에 대해서는 흥미가 있는 경우가 [표 9-2]와 같이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는 불과 12.2%였으나 90년대에는 2배로 증가하였고, 흥미가 없다는 반응도 2배로 감소하여, 과거의 획일적인 전공과목보다는 다양한 전공분야로 나누어진 90년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다른 海技高等教育機關인 목포해양대학교에서도 점차 흥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술교육이 우선이었던 전문학교 혹은 전문대학의 체제보다는 4년제 대학으로서의 변화가 긍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

1993년에 실시한 이길래의 연구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6.4%, 불만족 23.3%, 보통 40.3%가 응답²⁹⁾하여 본 연구와 큰 차이는 없었다. 따

29) 이길래·배석제·정흥기·홍성근, 前掲書, 1996, p.64.

라서 한국해양대학교의 긍정적인 반응률의 증가와 부정적 반응률의 감소는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표 9-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專門敎科에 대한 興味度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흥미가 있다	79(28.2%)	82(29.3%)	43(30.7%)	52(26.0%)	256(28.4%)
보통이다	154(55.0%)	139(49.6%)	75(53.6%)	111(55.5%)	479(53.2%)
흥미가 없다	39(13.9%)	56(20.0%)	19(13.6%)	34(17.0%)	148(16.4%)
기 타	8(2.9%)	3(1.1%)	3(2.1%)	3(1.5%)	17(1.9%)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8.34587$ $df=9$ $p=0.49970$

[표 9-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專門敎科에 대한 興味度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흥미가 있다	55(12.22%)	256(28.4%)	88(18.34%)	101(21.02%)	110(22.9%)
보통이다	245(54.44%)	479(53.2%)	288(60.00%)	330(68.71%)	288(60.0%)
흥미가 없다	142(31.56%)	148(16.4%)	100(20.83%)	47(9.74%)	82(17.1%)
기 타	8(1.78%)	17(1.9%)	4(0.83%)	2(0.51%)	0(0%)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4) 바람직한 敎授像觀의 분석결과

대학생활중 항상 마음속에 있는 바람직한 敎授像은 [표 10-1]과 같이 유의도가 $p<0.05$ 수준으로 각 학년별로 반응의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로 공통적으로 인격과 인간미가 풍부한 교수상을 바람직하다고 반응하였지만, 2학년의 경우 학식과 기술이 풍부한 교수상이 다른 학년에 비하여 2배 정도 많이 반응하였다. 또한 매사에 성실하고 열의가 있는 교수상을 바람직하다고 반응하여 인격과 인간미가 풍부한 교수상이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표 10-2]의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와 비교하면 바람직한 교수상의 순서는 동일하나 성실하고 열의가 있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교수상으로 가치관이 변화하였다. 이것은 대학인들의 바람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인격적인 우대와 따뜻한 사랑, 대화를 원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전술한 학습목적관에 의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위한 학습목적관과 연관시켜 볼 때 상관성이 크다.

선행연구인 이길래의 연구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의 바람직한 교수상에 대하여 공부를 잘 가르치는 교수님 9.9%, 학생들의 잘못을 고쳐주는 교수님 47.4%, 이해심이 많은 교수님 30.8%, 재미있게 잘 노시는 교수님 6.3%, 기타 5.5%로 반응³⁰⁾하여 본 연구와 비교한다면 인격과 인간미가 풍부한 교수상은 78.2% (47.4%+30.8%)에 달하여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30) 이길래 · 배석제 · 정흥기 · 홍성근, 前掲書, 1996, p.66.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서는 목포해양대학교의 경우 인격과 인간미가 풍부한 교수상이 증가하고 성실한 교수상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또한 90년대를 비교하면 한국해양대학교의 학생이 성실하고 열의가 있으며 학식이 뛰어난 교수를 선호하는 비중이 컸고, 전체적으로는 인격과 인간미가 풍부한 교수상을 선호하였다. 즉, 인간성 상실이라는 현대사회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의식형성이라고 하겠다.

[표 10-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바람직한 教授像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매사에 성실하고 열의가 있는 교수	74(26.4%)	89(31.8%)	39(27.9%)	55(27.5%)	257(28.6%)
학식과 기술이 풍부한 교수	13(4.6%)	30(10.7%)	9(6.4%)	10(5.0%)	62(6.9%)
인격과 인간미가 풍부한 교수	189(67.5%)	153(54.6%)	88(62.9%)	132(66.0%)	562(62.4%)
기 타	4(1.4%)	8(2.9%)	4(2.9%)	3(1.5%)	19(2.1%)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17.00872$

df=9

p=0.04858

[표 10-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바람직한 教授像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매사에 성실하고 열의가 있는 교수	91(20.22%)	257(28.6%)	166(34.58%)	148(30.75%)	120(25.0%)
학식과 기술이 풍부한 교수	19(4.22%)	62(6.9%)	44(9.17%)	15(3.07%)	149(2.9%)
인격과 인간미가 풍부한 교수	332(73.78%)	562(62.4%)	236(54.79%)	310(34.61%)	332(69.2%)
기타	8(1.78%)	19(2.1%)	7(1.46%)	7(1.46%)	14(2.9%)
합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5) 教授-學生 關係觀

師弟間的 친밀도인 教授-學生 關係觀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수와 학생의 친밀도를 확인하였다.

[표 11-1]에서 같이 유의도는 $p>0.05$ 로서 학년간의 차이는 없었다. 즉 학년별 공히 친밀하다고 반응한 경우는 불과 0.9%에 불과하고 또한 거리감이 있다는 반응은 무려 75.1%에 달한다. 이는 [표 11-2]의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와 비교하면 오히려 거리감이 있다는 반응이 74.67%에서 75.1%로 악화 되었다. 결국 학생들이 대다수가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은 주목해야할 점이다. 즉, 바람직한 교수상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인격과 인간미가 풍부한 교수상을 원하는 것과

관계를 살펴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서도 거리감이 있다는 내용이 지배적이지만 목포해양대학교의 경우는 70년대에 친밀하다는 반응이 0.8%에서 80년대는 4.10%로 증가하였고 90년대는 5%로 6배 가량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거리감이 있는 경우는 70년대의 83.34%에 90년대는 46%로 급감하였는데 한국해양대학교와 좋은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教授-學生 關係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친밀하다	1(0.4%)	3(1.1%)	1(0.7%)	3(1.5%)	8(0.9%)
보통이다	71(25.4%)	59(21.1%)	28(20.0%)	47(23.5%)	205(22.8%)
거리감이 있다	204(72.9%)	215(76.8%)	109(77.9%)	148(74.0%)	676(75.1%)
기 타	4(1.4%)	3(1.1%)	2(1.4%)	2(1.0%)	11(1.2%)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4.32632$ $df=9$ $p=0.88865$

[표 11-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바람직한 教授-學生 關係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친밀하다	12(2.67%)	8(0.9%)	4(0.8%)	20(4.10%)	24(5.0%)
보통이다	98(21.78%)	205(22.8%)	71(14.79%)	126(26.15%)	220(45.8%)
거리감이 있다	336(74.67%)	676(75.1%)	400(83.34%)	325(67.71%)	220(45.8%)
기 타	4(0.89%)	11(1.2%)	5(1.04%)	9(2.05%)	10(2.1%)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3. 사회에 대한 가치관 분석결과

1) 공공질서관의 분석결과

公共秩序觀이라 함은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질서의식에 관한 태도의 일면을 말한다.³¹⁾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태도가 어느 정도 변했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분석결과와 [표 12-1]과 같이 각 학년간의 인식차이는 유의도 $p>0.05$ 수준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³²⁾

학년간에는 전체적으로 주의를 준다는 반응이 37.2%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표 12-2]의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65.78%에 이르던 것이 급감한 것은 모르는 척한다는 반응이 9.33%에서 90년대에는 26.0%로 악화된 것과 연관이 있다. 즉,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변화한다고

31) 朴貴南, 前掲書, 1992, p.7.

3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申蘭植(1977)의 질문이며, 朴貴南의 연구는 “차를 타려고 질서 정연히 서 있다. 갑자기 미이란 사람이 새치기를 한다면 이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볼 수 있다. 이것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서 모르는 척한다는 반응이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불과 5.2%로 응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목포해양대학교에서도 주의를 준다는 반응이 70년대를 거쳐 90년대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 반응의 결과로 우리사회가 전통적인 유교사상에서 서구적인 사상인 개인주의의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생의 가치관도 변함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사회가 과학 및 산업화, 복잡한 대인관계 등의 복잡성이 개인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준 현상의 일면을 보이고 있다. 즉, 공공질서 의식의 변화의 경향은 서구사상인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표 12-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公共秩序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모르는 척한다	69(24.6%)	75(26.8%)	39(27.9%)	51(25.5%)	234(26.0%)
말없이 준다	84(30.0%)	79(28.2%)	36(25.7%)	49(24.5%)	248(27.6%)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98(35.0%)	100(35.7%)	55(39.3%)	82(41.0%)	335(37.2%)
기 타	29(10.4%)	26(9.3%)	10(7.1%)	18(9.0%)	83(9.2%)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4.49982$

df=9

p=0.87555

[표 12-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公共秩序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모르는 척한다	42(9.33%)	234(26.0%)	35(7.29%)	23(4.65%)	25(5.2%)
말없이 준다	77(17.11%)	248(27.6%)	77(16.04%)	228(47.17%)	204(42.5%)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296(65.78%)	335(37.2%)	350(72.92%)	212(43.58%)	217(45.2%)
기 타	35(7.78%)	83(9.2%)	18(3.75%)	17(3.59%)	34(7.1%)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2) 男尊女卑觀의 분석결과

우리의 전통적인 男尊女卑사상이 시대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관념의 일면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구성원의 사고체제가 달라지는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는 男尊女卑사상의 외형적인 형태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男尊女卑觀에 대하여 반응을 조사하였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학년간의 응답은 [표 13-1]과 같다.

유의도는 $p<0.05$ 로 나타났는데 학년간에는 다음의 특징이 있었다. 1학년은 男尊女卑에 대한 생각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3.2%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르겠다고 반응한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학년의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男尊女卑에 관해 당연한것이다라고 응답한 것 즉,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3-2]의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와 비교해서 당연한 것이라는 응답이 23.33%에서 11.3%로 감소되었고,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증가하고 있다.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서도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이 계속줄어들고 있고 또한 그런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는 반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질문 하나만 가지고 가치관의 변화를 어느 정도 중요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男尊女卑사상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男尊女卑의 사상에 대한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保守觀에서 개인주의적이고 서구적인 사고관으로 바뀌고 있다.

[표 13-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男尊女卑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당연한 것이다	21(7.5%)	35(12.5%)	18(12.9%)	28(14.0%)	102(11.3%)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86(30.7%)	91(32.5%)	44(31.4%)	62(21.9%)	283(31.4%)
그런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	136(48.6%)	140(50.0%)	66(47.1%)	95(47.5%)	437(48.6%)
모르겠다	37(13.2%)	14(5.0%)	12(8.6%)	15(7.5%)	78(8.7%)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17.23209$

df=9

p=0.04520

[표 13-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男女卑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당연한 것이다	105(23.33%)	102(11.3%)	115(23.96%)	81(16.92%)	76(15.8%)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138(30.67%)	283(31.4%)	157(32.71%)	125(26.15%)	125(24.0%)
그런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	190(42.22%)	437(48.6%)	190(39.58%)	257(53.33%)	280(58.3%)
모르겠다	17(3.78%)	78(8.7%)	18(3.75%)	17(3.59%)	9(1.9%)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3) 父母에 대한 態度觀의 분석결과

효도의 개념은 三綱五倫을 기반으로 하는 유교사상의 中樞的 요소이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효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지켜야 할 절대적인 도덕률이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子女된 者가 부모를 존경하며 잘 봉양하여 부모의 뜻에 거슬리지 않고 잘 순종하며 또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효도관에 대한 반응은 [표 14-1]과 같이 유의도 $p>0.05$ 상태로 각 학년간의 반응의 차이는 없고, 부모님의 말씀이 본인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는 59.7%의 학생이 진언하며 순종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순종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27.1%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효도관에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함을 부인할수 없

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³³⁾

[표 14-2]의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와 비교하였을 경우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4.9%에서 2배 가량 증가하였고, 그대로 순종한다는와 진언하며 순종한다는 등의 순종하는 반응이 70년대의 84.0%에서 64.8%로 뚜렷하게 감소하는등 가치관의 변화가 뚜렷하였다.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대상인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진언하며 순종한다는 반응이 70년대 76.3%에서 14.1%로 급감하였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반응도 증가하고 있어 한국해양대학교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순종했던 의식에서 합리적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겠다고 변하고 있어, 전통적 효도관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표 14-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父母에 대한 態度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순종하지 않는다	78(27.9%)	74(26.4%)	41(29.3%)	51(25.5%)	244(27.1%)
진언하며 순종한다	167(59.6%)	164(58.6%)	84(60.0%)	122(61.0%)	537(59.7%)
그대로 순종한다	15(5.4%)	16(5.7%)	6(4.3%)	9(19.6%)	46(5.1%)
모르겠다	20(22.7%)	26(9.3%)	9(6.4%)	18(9.0%)	73(8.1%)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2.70838$

df=9

p=0.97474

[표 14-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父母에 대한 態度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순종하지 않는다	67(14.89%)	244(27.1%)	63(13.12%)	101(21.02%)	218(45.4%)
진언하며 순종한다	345(76.67%)	537(59.7%)	366(76.25%)	320(66.66%)	68(14.1%)
그대로 순종한다	33(7.33%)	46(5.1%)	42(8.75%)	49(10.25%)	180(37.5%)
모르겠다	5(1.11%)	73(8.1%)	9(1.88%)	10(2.05%)	14(3%)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4) 配偶者 選擇觀의 분석결과

배우자의 선택이라 함은 배우자 선정에 관한 일면을 말한다. 사회가 물질문명의 영향으로 우리의 정신문명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해서, 배우자의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

33) 洪承稷, 한국인의 가치관의 연구에서 분석결과(1945.8.15. 이후와 그 이전을 비교의 내용), 1979, 朴貴南, 前掲書, 1992, p.10.에서 재인용.

는 가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15-1]과 같고 학년간의 유의도는 $p > 0.05$ 수준으로 나타나 학년간의 차이는 없었다. 즉 마음씨가 아름다운 배우자에 대한 선택관이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기타의 반응이 22.4%나 되었다. 기타의 반응은 배우자의 선택조건이 한가지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즉, 관념상으로 생각해온 배우자의 선택조건을 한가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모가 아름다운 배우자를 가문이나 재산 조건이 좋은 배우자보다 선호하였다.

[표 15-2]의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와 비교하면 마음씨가 고운 배우자의 선택 반응이 59.6%에서 62.9%로 증가하였고, 22.2%에 달하던 외모가 아름다운 배우자 선택 반응이 8.3%로 3배 정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가문이 좋고 재산이 많은 배우자의 선택은 70년대의 3.6%보다 2배 늘어난 6.3%에 달하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서는 외모가 아름다운 배우자에 대한 선택을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3배 정도인 18.8%로 보이고 있고, 복합적이거나 혹은 다양한 선택관으로서의 비교인 기타의 경우에는 6.8%에 불과하여 한국해양대학교 1/3에 해당한다.

배우자에 대한 선택관은 인간성 위주의 선택으로 변하고 있으나 반면에 가문도 중요시 하는 등 기타의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는 현실에서 방황하는 현대인의 複數的(二重的)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표 15-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配偶者 選擇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가문이 좋고 재산이 많은 배우자	18(6.4%)	19(6.8%)	8(5.7%)	12(6.0%)	57(6.3%)
외모가 아름다운 배우자	20(7.1%)	28(10.0%)	11(7.9%)	16(8.0%)	75(8.3%)
마음씨가 고운 배우자	63.9%	171(61.1%)	91(65.0%)	128(64.0%)	566(62.9%)
기 타	66(23.6%)	62(22.1%)	30(21.4%)	44(22.0%)	202(22.4%)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2.22593$

df=9

p=0.98737

[표 15-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配偶者 選擇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문이 좋고 재산이 많은 배우자	16(3.56%)	57(6.3%)	27(5.26%)	2(0.5%)	24(5.00%)
외모가 아름다운 배우자	100(22.22%)	75(8.3%)	140(29.11%)	59(12.30%)	90(18.8%)
마음씨가 고운 배우자	268(59.56%)	566(62.9%)	266(55.42%)	380(78.97%)	333(69.4%)
기 타	66(14.66%)	202(22.4%)	47(9.79%)	39(8.2%)	33(6.8%)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5) 幸福觀의 분석결과

행복이란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나 이 행복을 어느 경우에 가장 강렬하게 느끼느냐에 대한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 이러한 면에 입각하여 학년간의 幸福觀에 관한 반응으로 행복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 학년별의 차이는 [표 16-1]과 같이 유의도 $p < 0.05$ 수준에 있다. 즉 1, 3, 4학년은 자신의 목적이 성취될 경우에 행복하다는 정신적인 만족에 87.1%-87.5%에 상당하고 있으나 2학년의 경우 75.4%로 가장 낮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높은 지위를 얻어 성취할 경우에 관한 반응은 2학년 및 3학년이 각각 2.5% 및 2.1%로써 다른 학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반응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경우의 외형적인 행복관에 대해서도 2학년 및 3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하여 2배 정도 높게 반응하였다.

[표 16-2]의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와 비교하면 정신적인 만족이 91.11%에서 83.7%로 줄어들었고 또한 높은 지위를 얻을 경우도 2배 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만족은 70년대에 1.56%에서 9.0%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미약하지만 상당부분 변화하였다. 따라서 정신적인 만족에서 물질적인 만족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정신적 만족이 감소하는데 비해 물질적 증가함은 교육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목포해양대학교의 경우에서도 정신적인 만족이 줄어들고 있으며, 높은 지위에 대한 행복관은 70년대에 23.54%에서 6.0%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경제적인 풍요의 반응도 증가하였다. 海技高等教育機關간의 반응의 차이는 한국해양대학교가 정신적인 만족인 자신의 목적 성취와 높은 지위에 대한 반응이 84.5%에 달하지만 목포해양대학교는 68.5%에 불과하여 차이가 컸고, 또한 경제적인 풍요에 관해서는 목포해양대학교가 29%로서 한국해양대학교보다 3배 이상 높게 반응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치관의 변화에서는 정신적인 행복의 가치가 줄어들고 경제적인 행복의 가치가 늘어나고 있다. 명예욕구인 “높은 지위를 얻어 출세 했을 때”라고 응답한 경우는 海技高等教育機關 모두가 3차적 만족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극소수 였다.

[표 16-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幸福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자신의 목적이 성취될 경우	245(87.5%)	211(75.4%)	122(87.1%)	175(87.5%)	753(83.7%)
높은 지위를 얻어 성취할 경우	4(1.4%)	7(2.5%)	3(2.1%)	2(1.0%)	16(1.8%)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경우	17(6.1%)	40(14.3%)	40(14.3%)	15(7.5%)	81(9.0%)
기 타	14(5.0%)	22(7.9%)	22(7.9%)	8(4.0%)	50(5.6%)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22.14686$

df=9

p=0.00843

[표 16-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幸福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자신의 목적이 성취될 경우	410(91.11%)	753(83.7%)	310(64.58%)	356(74.35%)	300(62.5%)
높은 지위를 얻어 성취할 경우	12(2.67%)	16(1.8%)	113(23.54%)	17(3.58%)	29(6.00%)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경우	7(1.56%)	81(9.0%)	38(7.92%)	80(16.41%)	139(29%)
기 타	21(4.67%)	50(5.6%)	19(8.22%)	27(5.64%)	12(2.5%)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4. 직업에 대한 가치관 분석결과

1) 職業評價觀의 분석결과

직업이 전문화되고 생활방식이 변화된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직업의 개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직업의 선택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확인한 결과 [표 17-1]과 같이 학년간의 차이는 유의도 $p > 0.05$ 수준으로 학년간의 차이는 없었다. 즉 전반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안정된 직업 그리고 경제성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추어 학교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3학년 학생의 경우 경제성이 좋은 직업의 반응이 전체 평균 12.2%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7.9%가 반응하였다.

[표 17-2]의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와 비교할 경우에 경제성이 좋고 안정된 직업에 대한 반응이 11.33%에서 33.0%로 3배 증가하였고 대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또한 90년대의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서 목포해양대학교는 한국해양대학교보다 경제성이 좋고 안정된 직장을 바라고 있으며,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여 점차 보수가 좋은 직업을 원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차세대 직업선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상적인 직업관에서 현실적인 직업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 17-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職業評價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178(63.6%)	177(63.2%)	92(65.7%)	128(64.0%)	575(63.9%)
경제성이 좋은 직업	31(11.1%)	43(15.4%)	11(7.9%)	25(12.5%)	110(12.2%)
안정된 직업	64(22.9%)	49(17.5%)	33(23.6%)	41(20.5%)	187(20.8%)
기 타	7(2.5%)	11(3.93%)	4(2.9%)	6(3.0%)	28(3.1%)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8.38604$

df=9

p=0.49576

[표 17-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職業評價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391(86.89%)	575(63.9%)	362(75.42%)	348(72.3%)	234(48.8%)
경제성이 좋은 직업	28(6.22%)	110(12.2%)	71(14.79%)	95(19.48%)	114(23.8%)
안정된 직업	23(5.11%)	187(20.8%)	46(9.58%)	26(5.12%)	128(26.6%)
기 타	8(1.75%)	28(3.1%)	1(0.21%)	11(2.05%)	16(1.11%)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2) 職業成長觀의 분석결과

현재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대학생으로서 생각할 때 장래 海務에 종사하는 海技士로서 어떠한 각오로 임하겠는냐에 대한 학년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海技士로서 종사하게 되면 어떤 각오로 임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결과는 [표 18-1]과 같이 각학년 유의도 $p > 0.05$ 로 차이가 없었는데, 전학년에 걸쳐 긍정적인 반응이 91.7%로서 연구하며 열성을 다하고, 맡겨진 일을 모두 수행하겠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졸업을 앞둔 4학년의 경우 무사안일하게 지내겠다는 반응이 전체 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중요한 시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표 18-2]의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직업성장관의 비중이 낮아지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다는 반응과 무사안일하겠다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적극적이지 않는 반응이 많은 것은 학교설립 목표에 反하고 있으며 개인의 입장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서는 [표 18-2]와 같이 한국해양대학교가 긍정적인 반응이 2배 이상되었고, 목포해양대학교는 무사안일하게 지내겠다는 비중이 많았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사회공동체적 가치관과 직업의 의미에 큰 변화이다. 따라서 海技士 직업에 대한 퍼스낼리티(personality) 형성에 교육적 배려가 요구된다.³⁴⁾

[표 18-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職業成長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연구하며 열성을 다하겠다	93(33.2%)	85(30.4%)	45(32.1%)	68(34.0%)	291(32.3%)
맡겨진 일은 다하겠다	173(61.8%)	162(57.9%)	87(62.1%)	113(56.5%)	535(59.4%)
무사안일하게 지내겠다	4(1.4%)	16(5.7%)	5(3.6%)	13(6.5%)	38(4.2%)
기 타	10(3.6%)	17(6.1%)	3(2.1%)	6(3.0%)	36(4.0%)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15.50813$

df=9

p=0.07789

34) 朴貴南, 前掲書, 1992, p.12.

[표 18-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職業成長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연구하며 열성을 다하겠다	195(43.33%)	291(32.3%)	165(34.38%)	266(55.38%)	67(14%)
맡겨진 일은 다하겠다	243(54.00%)	535(59.4%)	282(58.75%)	199(41.55%)	350(73%)
무사안일하게 지내겠다	3(0.67%)	38(4.2%)	28(5.83%)	5(1.02%)	36(7.5%)
기 타	9(2.00%)	36(4.0%)	5(1.04%)	10(2.05%)	27(5.5%)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3) 海技士의 社會的 待遇에 대한 自己反應의 분석결과

三面이 바다이고 天惠의 보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진해양국가가 되지 못했음은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직업관에 대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의식구조 때문이었다.³⁵⁾ 그러나 근래에 바다의 날²이 지정되고,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는 등 해양에 대한 관심과 海運産業에 대한 관심 그리고 팔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으며, 海運産業에 종사하는 고급인력도 많아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느정도 矜持와 自矜心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할 것인가를 보기 위하여 “海技士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는 [표 19-1]과 같다.

海技士의 社會的待遇에 대한 自己反應에 관한 응답으로 海技士 사회적 지위가 나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각학년의 응답은 유의도 $p>0.05$ 수준으로 학년간의 차이가 없었다. 즉 전반적으로 상관치 않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는 諦念의 인 반응보다는 轉業(移職)을 하겠다는 반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학년에 비하여 2학년은 직업을 바꾼다는 반응이 32.1%로 가장 높았게 반응하였다.

[표 19-2]의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서 목포해양대학교는 직업을 바꾼다는 응답이 70년대에 33.54%, 90년대에는 37.7%로 반응하여 한국해양대학교보다 轉業(移職)을 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한국해양대학교보다 낮았다. 목포해양대학교는 轉業(移職)을 하겠다는 반응은 70년대와 비교하여 증가하는 반응이 높아 한국해양대학교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80년대와 비교할 경우 한국해양대학교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반응의 결과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가치관 변화의 경향보다는 海技士으로서 자기직업에 대한 使命感과 自矜心을 갖고 일할수 있는 의식구조가 정립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대우에 따라 轉業(移職)을 생각하는 수치가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35) 우리 민족의 海洋活動을 연구한 孫兌鉉은 “韓民族은 대륙성적 여건이 해양성적 여건을 압도하자 농경생활에 전념하게 되었고, 農耕民은 농경문화와 이질적인 海洋生活者에 대하여 불친근감, 멸시감을 갖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고, 또한 海洋生活者는 農耕民에 비하여 생활수준이 낮아서 자연히 賤視의 대상이 되고 虐待까지 받았다”라고 하였다. 孫兌鉉, 韓國海運史, 부산: 韓國船員船舶問題研究所, 1982, pp.9-11.

[표 19-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海技士의 社會的 待遇에 대한 自己反應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상관치 않겠다	101(36.1%)	88(31.4%)	53(37.9%)	75(37.5%)	317(35.2%)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한다	72(25.7%)	52(18.6%)	35(25.0%)	43(21.5%)	202(22.4%)
직업을 바꾼다	62(22.1%)	90(32.1%)	31(22.1%)	44(22.0%)	227(25.2%)
기 타	45(16.1%)	50(17.9%)	21(15.0%)	38(19.0%)	154(17.1%)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14.23293$

df=9

p=0.11428

[표 19-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海技士의 社會的 待遇에 대한 自己反應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상관치 않겠다	202(44.89%)	317(35.2%)	154(32.08%)	222(46.15%)	158(33%)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한다	95(21.11%)	202(22.4%)	134(27.92%)	91(18.97%)	114(23.7%)
직업을 바꾼다	98(21.78%)	227(25.2%)	161(33.54%)	128(26.66%)	181(37.7%)
기 타	55(12.22%)	154(17.1%)	55(12.22%)	39(8.20%)	27(5.6%)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4) 海技士 職業에 대한 評價觀의 분석결과

해운발전에 天然的條件을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부응해서 발전하지 못한 현실³⁶⁾에 海技高等教育機關의 학생들의 海技士라는 직업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직업에 비하여 海技士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은 [표 20-1]과 같이 海技士의 직업에 대한 유의도는 $p>0.05$ 수준으로 전체 학년에서 좋은 직업이라는 반응과 좋은 직업이 아니다라라고 반응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학년이 높아 질수록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반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4학년의 경우 17.5%가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반응하였는데 이는 1학년의 8.2%에 비하면 약 2배 가까이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직업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저 그렇다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40.3%로 반응하여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직업관에 있어서 갈등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0-2]의 70년대 한국해양대학교와 비교해서는 海技士의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30.2%에서 38.7%로 증가하였고, 또한 좋은 직업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22.77%에서 14.0%로 줄어들었다. 海技高等教育機關의 비교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가 목포해양대학교 보다 좋은 직업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목포해양대학교 역시 70년대와 비교하여 좋은 직업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증가고,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반응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36) 朴貴南, 前掲書, 1992, p.14.

전통적인 직업의식도 점진적이거나 변화하고 있어 사회인의 직종에 대한 의식의 시야가 약간이나마 넓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 따라서 海技士라는 직업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증이다.

[표 20-1] 90년대 海技高等教育機關의 學年別 海技士 職業에 대한 評價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좋은 직업이다	120(42.9%)	106(37.9%)	47(33.6%)	75(37.5%)	348(38.7%)
그저 그렇다	116(41.4%)	104(37.1%)	62(44.3%)	81(40.5%)	363(40.3%)
좋은 직업이 아니다	23(8.2%)	47(16.8%)	21(15.0%)	35(17.5%)	126(14.0%)
기 타	21(7.5%)	23(8.2%)	10(7.1%)	9(4.5%)	63(7.0%)
합 계	280(100%)	280(100%)	140(100%)	200(100%)	900(100%)

$\chi^2=16.23949$

df=9

p=0.06205

[표 20-2] 海技高等教育機關의 時代別 海技士 職業에 대한 評價觀

구분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7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좋은 직업이다	136(30.22%)	348(38.7%)	133(27.71%)	145(30.22%)	143(30%)
그저 그렇다	185(41.11%)	363(40.3%)	154(32.08%)	198(41.11%)	236(49%)
좋은 직업이 아니다	102(22.67%)	126(14.0%)	180(37.50%)	109(22.67%)	80(16.6%)
기 타	27(6.00%)	63(7.0%)	13(20.71%)	28(6.00%)	21(4.4%)
합 계	450(100%)	900(100%)	480(100%)	480(100%)	480(100%)

V.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의 가치관과 海技高等教育機關間의 시대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 海技高等教育機關의 학년별 가치관 차이를 분석하려고 하였으나, 가치관이라는 것이 몇 년간의 교육경험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표 21] 學年別 價値觀의 종합 비교와 같이 비교 내용 대부분에서 학년간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海運發展觀, 入學動機觀, 바람직한 教授像觀, 男尊女卑觀, 幸福觀에 있어서는 유의수준 $p < 0.05$ 로 학년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入學動機觀에서부터 서로 관련이 된다고 생각되는 海運發展觀, 바람직한 教授像觀 및 幸福觀이 2학년 학생에 의해 학년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海運發展觀에 있어

37) 朴貴南, 前掲書, 1992, p.14.

서는 2학년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는데 이는 入學動機觀에 있어서 다른 학년과는 달리 성적에 의한 합격 가능성에 따르는 기타의 응답이 다른 학년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바람직한 教授像觀에서도 2학년의 경우 학식과 기술이 풍부한 교수를 바람직하다고 반응하여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幸福觀에 있어서도 2학년 학생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하여 정신적인 만족의 행복이 가장 낮고, 물질적인 만족이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男尊女卑觀에서는 막 성년이 되어가고 있는 1학년 학생에 의해 학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學年別 價値觀의 종합 비교

가치관 비교 내용	카이자승분포(χ^2)	자유도(df)	유의도(p)
學年別 自主觀	7.60304	9	0.57459
學年別 財貨獲得觀	11.73887	9	0.22843
學年別 節約觀	7.67588	9	0.56711
學年別 勤勞觀	16.00423	9	0.06679
學年別 海運發展觀	16.91986	9	0.04999
學年別 入學動機觀	18.28778	9	0.03198
學年別 學習目的觀	5.84778	9	0.75505
學年別 專門教科에 대한 興味度	8.34587	9	0.49970
學年別 바람직한 教授像觀	17.00872	9	0.04858
學年別 觀教授-學生 關係觀	4.32632	9	0.88865
學年別 公共秩序觀	4.49982	9	0.87555
學年別 男尊女卑觀	17.23209	9	0.04520
學年別 父母에 대한 態度觀	2.70838	9	0.97474
學年別 配偶者 選擇觀	2.22593	9	0.98737
學年別 幸福觀	22.14686	9	0.00843
學年別 職業評價觀	8.38604	9	0.49576
學年別 職業成長觀	15.50813	9	0.07789
學年別 海技士의 社會的 待遇에 대한 自己反應	14.23293	9	0.11428
學年別 海技士 職業에 대한 評價觀	16.23949	9	0.06205

*p<0.05

구체적으로 海技高等教育機關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생의 학년별 가치관 차이와 海技高等教育機關間的 시대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1) 경제에 대한 가치관

① 自主觀에 대한 가치관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전체 학년이 자신의 노력, 타고난 운명, 국가의 시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목포해양대학교의 경우 국가의 시책이 타고난 운명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70년대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었다.

② 財貨獲得觀은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우 가능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하고자 했고, 70년대와 비교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비율은 줄어들었고, 목포해양대학교 역시 비슷하게 변하고 있다.

③ 節約觀의 설문인 결혼식의 방법은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는 가정형편에 맞추어 하되 간소하게는 하지 않겠다는 반응으로 변하고 있다.

④ 勤勞觀에 있어서 한국해양대학교의 전체적인 반응이 “전보다 적게 일하겠다”는 반응이 가장 높았고 70년대와 비교하여 “일을 계속하겠다”는 반응이 급격히 줄었다. 목포해양대학교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⑤ 海運發展觀의 분석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의 2학년이 비관적인 반응이 높았고, 전반적으로 70년대와 비교하여 낙관적으로 반응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목포해양대학교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다.

2) 교육에 대한 가치관

① 入學動機觀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1, 4학년은 주위의 권유로 입학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2학년은 성적에 맞춘 경우 많았으며, 3학년은 적성과 소질에 맞추어 입학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70년대와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적성과 소질 혹은 주위의 권유로 입학하는 변화로 나타났다. 목포해양대학교도 같은 변화를 보였다.

② 學習目的觀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에서 70년대와 비교하여 대학을 인격도야의 장이라는 가치에서 좋은 직장을 얻기위해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가치관이 변화하였다.

③ 專門敎科에 대한 興味度는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우 70년대와 비교하면 흥미도가 증가하였고,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목포해양대학교도 같은 반응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해양대학교보다 미흡하였다.

④ 바람직한 敎授像觀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의 2학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격과 인간미가 풍부한 교수상을 바람직하다고 반응하였지만 70년대와 비교하여 감소하고 성실하고 기술이 풍부한 교수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한국해양대학교와 반대양상이었다.

⑤ 敎授-學生 關係觀은 한국해양대학교는 거리감이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고 70년대와 비교하여 악화되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과거보다 거리감이 좁혀지고 있었다.

3) 사회에 대한 가치관

① 公共秩序觀에서 한국해양대학교는 전체적으로 소극적으로 반응하였으며 70년대와 비교하면 개인주의적 경향과 무관심한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목포해양대학교 역시 같은 변화를 보였으나 한국해양대학교 보다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② 男尊女卑觀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1학년을 제외하면 “없어져야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수적으로 반응하였고 70년대와 비교하면 남녀평등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목포해양대학교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③ 父母에 대한 態度觀인 효도관은 한국해양대학교 전학년이 부모의 뜻과 맞지 않을 경우 진언하며 순종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70년대와는 달리 순종하는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순종하지 않는 반응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순종한다는 반응도 증가하는 등 변화경향이 달랐다.

④ 配偶者 選擇觀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달리 마음씨가 고운 배우자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한국해양대학교의 학생들은 목포해양대학교 학생과는 달리 많은 수가 복합적인 배우자를 선택하기를 희망하였다.

⑤ 幸福觀의 경우 한국해양대학교의 재학생들은 각기 다른 형태로 반응하였다. 전반적으로 정신적인 만족이 지배적이었고 극소수 만이 3차적 만족으로 높은 지위를 얻기 원했다. 70년대와 비교하면 물질적인 만족이 높게 증가하고 있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정신적인 만족이 과반수를 넘었고 또한 물질적 만족이 급격히 증가하여 2차적 만족으로 나타났다.

4) 직업에 대한 가치관

① 職業評價觀에서는 학년간에 차이없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과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였는데 70년대와 비교하면 경제성이 좋은 직업과 안정된 직업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경제성과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였고 70년대와 비교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호도가 급감하고 안정된 직업의 선호도가 급증하였다.

② 職業成長觀에서는 전학년에 걸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70년대와 비교하여 한국해양대학교는 무사안일하겠다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열성적으로 근무하겠다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맡겨진 일을 다하겠다는 비중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한국해양대학교보다 열성적이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③ 海技士의 社會的 待遇에 대한 自己反應의 분석결과 한국해양대학교의 재학생은 전반적으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높았고, 체념적인 반응보다는 專業의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70년대에서도 轉業의 반응이 가장 높았고 목포해양대학교도 같은 반응이었다.

④ 海技士 職業에 대한 評價觀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학년이 될수록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지다가 4학년에서는 反轉하였다. 그러나 70년대와 비교하여 좋은 직업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데, 반응의 정도는 목포해양대학교보다 긍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된 결과는 과거 70년대 혹은 80년대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海技高等教育機關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직업인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야가 중요한데, 특히 계속해서 남아있는 男尊女卑 思想, 증가하는 拜金主義 思想, 또한 공공질서에서의 利己主義 혹은 個人主義 思想이 제거되어야 된

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平等精神, 協同精神, 自我實現 등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과거의 교수법이 지식과 기술에 근거했지만, 현재의 학생들은 인간미가 뛰어난 교수를 바라고 있다. 특히 海技高等教育機關에서의 교수와 학생간의 거리감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수방법의 개선 혹은 학생에 대한 관심이 변화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교수는 학생과 친밀한 접촉을 통하여 거리감을 없애고 존경받는 교수가 되도록 노력해야하며 보다 큰 교육애로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기관인 海技高等教育機關의 입학동기가 경제적환경에 의한 타의적인 동기로 입학한다는 과거의 논의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즉,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원학생의 적성과 취미 등이 중요한 입학동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만족 이상의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의 직업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경제성이 좋고 안정된 직업을 원하고 있고, 또한 물질적인 만족의 행복관이 과거와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海技士라는 대우가 나빠진다면 轉職을 하겠다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우선적으로 금전적인 海技士 직업에 대한 만족을 못할 경우 대량 移職이 예상된다. 그러나 海技高等教育機關의 교육개혁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흥미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참고한다면 海技高等教育의 목표가 더욱 분명히 설정되고 지속적인 개혁이 있으면 해기직의 매력화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海技士라는 직업에 대한 신념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과거 획일적인 교육체계하에서의 만족도보다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海技高等教育機關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변하고 있는 경우에 선진 해운국가와 같이 오히려 海技職을 선호하고 수요가 증가하며 진출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海技高等教育機關 학생의 가치관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해기고등교육의 실시를 확인하였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선진 해양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기전문직이 더욱 매력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결과로 나타난 부정적인 반응을 최소화 시키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의 해결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는 물론 피교육자인 학생도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姜熙昶, 工業高等學校 學生들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3.
2. 金仁子·黃應淵, 韓國大學生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西江大學校 社會問題研究所, 1974.

3. 金泰吉, 새로운 價値觀의 同志, 서울: 民衆書館, 1972.
4. 金泰吉,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 일조각, 1967.
5. 朴貴南, 海洋系 大學生의 價値觀에 變化에 對한 考察 -經濟的, 教育的 價値觀 變化를 中心으로-, 목포해양전문대학 논문집 제19집, 목포해양전문대학, 1985.
6. 朴貴南, 海洋系 大學生의 價値觀에 變化에 對한 考察 -社會的, 職業的 價値觀 變化를 中心으로-, 목포해양전문대학 논문집 제17집, 목포해양전문대학, 1983.
7. 朴貴南, 海洋系 大學生의 經濟觀과 教育觀의 變異考 - 木浦海洋大學生을 中心으로 -, 목포해양대학 논문집 제2집, 목포해양대학, 1994.
8. 朴貴南, 海洋系 大學生의 社會觀과 職業觀의 變異考 - 木浦海洋大學生을 中心으로 -, 목포해양전문대학 논문집 제26-1집, 목포해양전문대학, 1992.
9. 申蘭植, 海洋系 大學生들의 價値觀에 關한 研究, 목포해양전문대학교 논문집 제11집, 목포해양전문대학교, 1978.
10. 신한원·문경만·김윤식·이영호·채양범·박호철·설동일·국승기, 해사대학생들의 효율적인 승선생활훈련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학회지 제15권 4호, 한국항해학회, 1991.
11. 양시권, 해운환경 변화에 따른 海技士 교육의 개선책, 한국항해학회지 제17권 2호, 한국항해학회, 1993.
12. 李履男, 司書의 價値觀에 關한 研究,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2.
13. 이길래·배석제·정홍기·홍성근, 수·해운계 승선계열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및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한국항해학회지 제20권 2호, 한국항해학회, 1996.
14. 李相集, 21世紀를 向한 海技高等教育, 한국항해학회지 제17권 1호, 한국항해학회, 1993.
15. 張彦孝·安昌一·李光鏞, 社會發展을 위한 大學生의 價値觀 및 意識構造 變化에 關한 研究, 文教部, 1982.
16. 鄭範謨, 價値觀과 教育, 서울: 培英社, 1979.
17. 崔正燕, 知覺心理學, 서울: 乙酉文化史, 1972.
18. 黃禎奎, 教育評價, 서울: 教育出版社, 1968.
19. Kluckhohn, C. and Others, "Values and Val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alcot Parson, Edward A Shils, et al.,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20. Feidman, K. A. and Newcomb T. M. , The Impact of College on Students, San Francisco : Tossey-Bass Inc., Pub., 1970.

附 錄

설 문 지

연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우리나라 해운계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 기초위에서 교육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학생지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빠짐없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생각한 바를 ①부터 ④중에서 하나만 골라 _____에 √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 _____ ① 1학년
- _____ ② 2학년
- _____ ③ 3학년
- _____ ④ 4학년

사람이 잘 살고 못사는 것은 무엇에 의한다고 생각합니까?

- _____ ① 자신의 노력
- _____ ② 국가의 시책
- _____ ③ 자기가 타고난 운명
- _____ ④ 기타

장차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시겠습니까?

- _____ ① 반드시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모은다.
- _____ ② 가능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다.
- _____ ③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모은다.
- _____ ④ 기타

본인의 결혼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 _____ ① 간소하게 한다.
- _____ ② 가정 형편에 맞추어 한다.
- _____ ③ 일생에 한번뿐이니 호화롭게 한다.

_____ ④ 기타

정년이 되도록 일을 열심히 하여 부유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_____ ① 계속 전과 다름없이 일한다.

_____ ② 전보다 적게 일한다.

_____ ③ 일을 않고 편히 지낸다.

_____ ④ 기타

앞으로 우리나라 해운계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_____ ① 아주 발전할 것이다.

_____ ② 조금 발전할 것이다.

_____ ③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_____ ④ 전망이 어둡다.

우리대학에 입학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적성과 소질 그리고 취미에 맞는 것 같아서

_____ ② 경제적 사정으로

_____ ③ 주의의 권유로(교사, 부모, 친지, 친구, 선배 등)

_____ ④ 기타

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_____ ① 장차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_____ ②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_____ ③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_____ ④ 기타

전공교과에 어느 정도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까?

_____ ① 흥미가 있다.

_____ ② 보통이다.

_____ ③ 흥미가 없다.

_____ ④ 기타.

내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수상은?

_____ ① 매사에 성실하고 열의가 있는 교수

_____ ② 학식과 기술이 풍부한 교수

_____ ③ 인격과 인간미가 풍부한 교수

_____ ④ 기타

우리대학의 교수와 학생간의 친밀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_____ ① 친밀하다.
- _____ ② 보통이다.
- _____ ③ 거리감이 있다.
- _____ ④ 기타

공원에 어린이가 휴지를 버리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_____ ① 모르는 척 한다.
- _____ ② 말없이 줍는다.
- _____ ③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 _____ ④ 기타

남자는 높이고 여자는 낮게 생각하는 男尊女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__ ① 당연한 것이다.
- _____ ②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 _____ ③ 그런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
- _____ ④ 모르겠다.

부모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_____ ① 자기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 _____ ② 자기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는 진언하며 순종한다.
- _____ ③ 자기와 뜻과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한다.
- _____ ④ 모르겠다.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어떤 여성으로 택하겠습니까?

- _____ ① 가문이 좋고 재산이 많은 여자
- _____ ② 미모의 여자
- _____ ③ 마음씨가 고운 여자
- _____ ④ 기타

다음 중 어느 경우에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 _____ ①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 _____ ② 높은 지위를 얻어 출세했을 때
- _____ ③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을 때
- _____ ④ 기타

어떤 직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 _____ 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 _____ ② 경제성이 좋은 직업

_____ ③ 안정된 직업

_____ ④ 기타

장차 해기사으로서 종사하게 되면 어떻게 근무하겠습니까?

_____ ① 항상 연구하며 열성을 다하겠다.

_____ ② 나에게 맡겨진 일은 다하겠다.

_____ ③ 무사 안일하게 지내겠다.

_____ ④ 기타

해기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다면 어떠하겠습니까?

_____ ① 상관치 않고 해운 발전에 기여하겠다.

_____ ②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한다.

_____ ③ 직업을 바꾼다.

_____ ④ 기타

다른 직업에 비하여 해기사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_____ ① 좋은 직업이라 생각한다.

_____ ② 그저 그렇다.

_____ ③ 좋은 직업이 아니다.

_____ ④ 기타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